보도자료

주소: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3층 HV 01호 / (서울역사무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 320-28 1층 왼쪽
전화: 02-2634-4331 / 이메일: homelessact@gmail.com

발신	**2024홈리스주거팀**(공익인권법재단공감,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동자동사랑방,두루두루배움터,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사단법인나눔과미래,사단법인온율,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양동쪽방주민회,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재단법인동천,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홈리스행동 / 이상16단체)
수신	각 언론
담당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010-3630-1529>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8495-0283>
날짜	2024.10.08.
제목	**후속보도자료> 10월 7일(월), 세계 주거의 날 맞이 동자동 쪽방주민 문화제 개최 소식**

10월 7일(월), 동자동 쪽방촌에서 주민들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 맞이 “문화제-이사 가는 날” 열어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어제(10.7.) 오후, 1985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 주거의 날(10월 첫 월요일)을 맞아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쪽방촌 내 공원에서 “이사 가는 날”이라는 이름의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이날 문화제는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16개 단체로 구성된 ‘2024홈리스주거팀’은 지치고 실망한 주민들 스스로 위로하고,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주택이

7. 2021년 2월, 정부가 약속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하,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만 3년 반 이상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현실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실제,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21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2022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2026년 입주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반대를 이유로 들 뿐 어떠한 구체 일정도 제시하지 않아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말 그대로 시계제로입니다.

건설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이사 가는 날을 가상한 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행사장인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는 '공공주택 사업 추진 요구 주민 서명 운동'이 시작된 2020.03.17.부터 이날 문화제에 이르는 "1665일 간의 투쟁기록"을 담은 사진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문화제는 주최 측과 손님 인사, 주민들의 촌극 공연, 주민 이야기 나눔, 아랫마을홈리스야학의 노래공연, 축문 낭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첫 순서인 '초대의 말씀'을 맡은 **동자동공공주택추진주민모임의 백광헌 부위원장**은 "벌써 4년 전이다. 2021년도에 모든 방송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여기서 살면서 아파트 세대를 먼저 지은 다음에 옮기면 된다고 발표를 했다. 그날 동자동 모든 주민이 울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진척없는 사업으로 실망하는 주민들의 분위기와 낙후하고 방치되는 동네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 부위원장은 "우리가 어디 가나? 나이 먹고 일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래도 끝까지 투쟁하자"며 힘을 북돋웠습니다. 연대단체들의 '손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윤범기 지부장**(언론노조 MBN 지부장)은 노조 활동으로 진행한 도시락 나눔 연대 경험을 전하며 정부의 시혜적인 태도를 너무도 많이 접했다며 "공공주택 사업은 시혜도 편의도 아니라, 동자동 주민들의 권리다. 오늘은 공공 주택으로 이사하는 '척'하는 날이지만, 정말로 공공 주택으로 이사하는 날까지 중부지역지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지역단체인 용산시민연대 이철로 운영위원**은 유럽의 높은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진 과정을 언급하며 "공공주택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자동 주민 조직처럼 "주거 평등권을 위한 활동만큼 연대가 좋고 투쟁력이 좋은 조직"은 드믈다며 반드시 공공주택 건설이 이뤄질 것이라 지지하였습니다.

4. 문화제는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2024홈리스주거팀이 공들여 준비한 촌극 <이사 가는 날>이 정점을 이뤘습니다(세부 내용은 대본 참조). 문화제는 동자동 쪽방에서의 주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집 다운 집을 보장받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주민 이야기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를 담당한 주민 **김영자 님**은 동자동에서의 35년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열악한 거처에 살며 식당과 노점에서 일하며 "매일 쉬지 않고 일 했지만, 돈은 모이지 않아 이사 간다는 건 마음 같지 않"았어도, "딸이라고 하면서 챙겨주던 혹부리 할머니처럼 좋은 분들도 계셔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싸워왔습니다'는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최갑일 교육홍보이사**와 사회자와의 대담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갑일 이사는 동자동 주민활동가로 2020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공공주택 사업 실현을 위한 활동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지어져서 집 문 앞에 내 이름 문패 걸고 살면 사람답게 사는구나" 싶겠다며,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내가 움직여서 성과가 나와야지 그게 만족이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재차 독려하였습니다.

5. 이날 문화제는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차재설 교육홍보이사**의 축문낭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화제는 이삿날과 집들이를 가장한 행사인 만큼 사전행사로 '이사 짜장 나누기'가 진행되었고, 주민과 연대단체 활동가 약 100명이 참여해 마을잔치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동자동 쪽방 주민의 노래공연,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합창단의 노래공연도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6.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2024홈리스주거팀은 앞으로도 공공주택 사업 실행을 통해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행사 포스터


동자동 주거의날 문화제
동자동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가는 날〉
그날은 언제일까, 언제쯤 오려나
동자동 영구임대주택 미리보기
우리 참 열심히 싸웠지
공공임대 이사 가면 하고 싶은 게 많아!
집다운 집에서 오래오래 살자
지금 당장
지구지정
주최 2024홈리스주거팀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기다리다 지쳐 가상의 이삿날을 그려봅니다.
주거권이 실현된 집들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직 멈춰있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일정 안내합니다!
일시
2024.10.7 (월) 오후 4:00~6:00
장소
동자동 새꿈어린이 공원
(용산구 동자동 8-1)
문화제 내용
짜장면 파티, 사진전과 촌극, 노래공연을 즐기고
동자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동자동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가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첨부2. 행사 사진



▲사전 행사로 진행 된 ‘이사 짜장 나누기’에서 짜장라면을 드시는 동자동 쪽방 주민의 모습



▲ 노래공연 중인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합창교실’ 학생들



▲ 사회를 본 김호태 전 대표(동자동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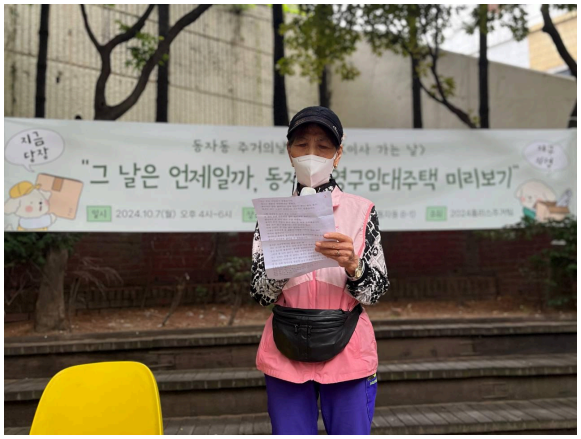
▲ ‘초대의 말씀’을 진행한 백광헌 부위원장(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 손님 인사(연대발언)을 진행하는 윤범기 지부장(민주노총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 손님 인사(연대발언)을 진행하는 이철로 운영위원(용산시민연대)



▲ 주민이야기(이렇게 살아왔습니다)를 나누는 김영자 주민



▲ 문화제 참여자들의 단체 사진



▲ 문화제의 정점, 촌극 '이사 가는 날' 공연 중인 주민들 1



▲ 문화제의 정점, 촌극 '이사 가는 날' 공연 중인 주민들 2

첨부3. 축문

축문

쪽방.
두 평도 되지 않는 그 좁은 방에 가만히 있다 보면
집 같은 집에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매일 매일 그랬고,
그런 날이 쌓여 십여 년이 흘렀습니다.

가난한 우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챙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며 손가락질하기도 하지만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관계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동자동 쪽방 주민 모두에게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몇 달 후면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발표 난지 4년이 됩니다.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죽어가는 사람 수도 늘어나
살아 있는 이들은 이를 지켜보며 괴롭고,
기약 없는 기다림에
죽어서야 동자동을 떠날 수 있는 것일까 암담해집니다.

개발 계획 발표 직후,
우리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으로많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지며
동자동 공공개발 촉구를 위해 열심히 투쟁했지만
기약 없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새 힘이 빠져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를 지지하며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저희와 함께 끝까지 싸워 주십시오.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도시 빈민을 위한 개발사업이 민간의 배를 불리기 위한 투기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투기가 주거권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함께 외쳐 주십시오.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내서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이렇게 외쳐 봅시다.

주거는 인권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주거권보다 투기가 우선일 수 없다, 동자동공공주택사업 조속히 추진하라!

첨부4. 발언문(발언문 작성자에 한 함)

손님 인사_윤범기 (민주노총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지부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지부장)

안녕하세요!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 지부장 이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지부장인 윤범기라고 합니다.

동자동 쪽방촌은 저도 취재 때문에 몇번 온적이 있었는데, 민주노총 서울본부 활동을 하면서 자주 찾아뵙게 됐습니다.

한달에 한번 오는 먹성 좋은 그 아저씨 맞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있는 민주노총 노동조합들이 모여 있습니다.

중부지역지부는 동자동 사랑방에서 주민 분들께 드리는 도시락도 가끔 같이 준비하기도 합니다. 매일 점심 동자동 사랑방이 주민 분들께 1000원에 판매하는 도시락에,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간식을 보태는데요. 도시락 간식 나눔 연대를 할 때마다, 중부지부는 동자동에 방문해서 간식을 나누고, 동자동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시혜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언가를 베푸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베풂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베푸는 행위를 겉으로 내보이면서 성과로 내세우지만, 약자들이 권리를 요구하면 그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 약자들이 불행한 약자에만 머무르도록 억누르면서 계속 베푸는 척하는 것. 이런 모습을 시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서 시혜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MBN지부는 이런 시혜적인 정부와 기업에게, 시혜를 넘어서 권리를 요구하고 투쟁합니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도시락 나눔 연대를 하며 중부지부는 정부의 이런 시혜적인 태도를 너무나 많이 접했습니다.

850명이 사는 쪽방촌에 폭염 대피 휴식실을 10개만 제공하고,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해놓고 입주 예정인 1월이 훌쩍 지나 아직까지 첫 단계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자동 주민들의 주거권이 시혜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적절한 주거 환경은 누구에게든 보장되어야 합니다. 겉보이기식 시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공공 주택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세상을 떠나는 동자동 주민들도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는 쪽방에 사람이 살게 내버려두니 이렇습니다. 정부는 공공 주택 사업을 지금 바로 시작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시혜도 편의도 아니라, 동자동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오늘은 공공 주택으로 이사하는 '척'하는 날이지만, 동자동 주민들이 정말로 공공 주택으로 이사하는 날까지 중부지역지부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주민 이야기 나눔_김영자 (동자동 쪽방, 주민)

안녕하세요. 동자동에 사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동자동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삼십 오 년 전, 서른여덟인가 아홉일 때부터 동자동에서 살았습니다.동자동에서 처음 살던 곳은 지금 식도락(동자동사랑방의 부속 공간) 건물 2층이었는데 이곳에서는 5년인가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박스값이 괜찮아 계단에 모아 뒀다가 동회에 갖다 주면 10개짜리 휴지를 줘서 하나씩 나눠 썼습니다.

그때는 겨울에 연탄으로 난방을 했는데 아궁이 하나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불이 들어가면 앞의 방만 따뜻하고 뒤의 방은 온기가 가지 않아 추웠습니다. 겨울이면 지원되는 연탄을 가이당(계단) 올라가는 사이에 쌓아 놓고, 하루에 네 장 반씩 떼던 연탄이 모자라면 전남상회에서 새끼줄에 두 개씩 껴서 사다 썼습니다. 식도락 건물에 살 때는 연탄이 무거워서 건물 위에서 나래비(줄)로 연탄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사는 지금 집은 옥탑이라 겨울이 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벽산빌딩 앞부터 쭉 나란히 서서 4층까지 연탄을 올려 줬습니다.

지금 행사하는 이곳 새꿈공원은 예전에는 판자촌이었습니다. 판자촌에 불이 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은 10만 원씩 받아 근처 쪽방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주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새로나 백화점 식당에서도 일하고, 예전에는 남산 올라가는 길에 국수도 팔고, 술도 팔고, 튀김도 파는 노점이 많았는데 거기서도 일했습니다.

그때 동자동은 살기 험한 곳이라 일 갔다 오면 연탄재를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 옆집에서 술 같이 먹다 누굴 죽였다, 창자가 터져 죽었다 하고 말도 못 하게 끔찍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했지만, 돈은 모이지 않아 이사 간다는 건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잘 해줬던 사랑방 사무실 위에 살던 박미숙 할머니나 딸이라고 하면서 챙겨주던 혹부리 할머니처럼 좋은 분들도 계셔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발표 났을 때 저는 조그만 방 있고, 손님 오면 커피 한잔 먹을 공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도 개발 소식이 없으니 죽기 전에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발된다는 이야기는 아주 옛날부터 들렸었는데 몇 년 전에 정식으로 발표가 나서 이제는 되는가 보다 했지만 발표만 하고는 아무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서 빨리 개발이 돼서 죽기 전에 집다운 집에서 살아 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래 봅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민 이야기 나눔(대담)_최갑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사업이사 / 동자동 쪽방, 주민)

- 문 : 김호태
- 답 : 최갑일

문>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답> 저는 최갑일이고요. 이 동네, 양동, 도동, 동자동 다 합쳐서 한 5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에서 사업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 동네 자율방범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말하자면 가짜 집들이에요. 진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공공주택사업 해달라고 하다하다 이게 이런 짓까지 다 하는데, 그럼 그동안 뭐 어떤 거를 해왔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답> 원래 쪽방에 영구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영등포 쪽방이 처음이잖아요. 2020년, 그것도 용산참사가 터졌던 1월 20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젠 용산참사와 같은 짓은 더이상 안 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동자동은 하겠단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2020년 3월에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공공주택사업 추진 요구하는 청원서 서명을 받았어요. 주민 288명이 서명을 해 주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이 정도 받은 건 엄청난 거예요. 주민들이 도가니도 안 좋은데 계단 오르내리며 힘들게 받았으니까요. 서명 받은 거 갖고 기자회견도 열고 구청에도 제출했죠. 그랬더니 구청에선 답변으로 한다는 얘기가 동자동은 이미 지정된 민간개발계획대로 진행할거라고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더라고요.

문> 하여간 서울시든 용산구청이든 뭐 의견을 내고 질문을 하면 꼭 저렇게 생각없이 얘기해요. 그러면 동자동에 공공주택 짓겠다는 발표 나고 부터는 뭘 했는지 한 번 말해봐요.
답> 같이 했으면서 왜 모르는 것처럼 물어요?
문> 사회자니께 그래요.
답>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작년 5월 달, 대통령 취임 1년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년 된 날 장관 집 찾아간 게 기억나요. 우리 동네에서 나이 80 넘은 조인형 형님이 리어커에다 집을 지어서 끌고 우리는 따라가고 하면서 한강다리를 넘어서 국토부 장관 집 앞으로 행진해서 갔어요. 여러 단체에서도 연대와서 많이들 갔어요. 원희룡 장관 집 보니 한강 바로 앞에 새 아파트고 전망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지켜주기까지 하니 얼마나 더 좋겠어요. 거기 가서 공공주택사업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 좀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다고 외쳤죠. 장관 코빼기도 못 봤어요.

문> 국토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세종시도 갔었잖아요? 그땐 어땠어요?
답> 공공주택사업 발표 난 2021년도에 우리가 없는 살림에 버스까지 대절해서 세종시 갔어요. 그때는 그래도 국토부 직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집주인들하고 협의가 잘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니 건물주하고 협의가 될거면 뭐하러 우리가 세종시까지 가서 시위를 하겠어요. 안 되니까 가는 거지.

문> 그때 주민들이 많이 가셔서 세종시도 보고, 국토부도 보고 좋았죠. 그 다음 생각나는 일은 뭐요?
답> 열 받는 일인데, 작년 2월에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서울역 앞에 한진빌딩 8층에서 설명회 한다고 해서 주민들 여럿이 시간 맞춰 갔어요. 갔더니 집주인들은 이미 좋은 자리 앞자리 맡아 놓고 우리는 뒤에 간신히 앉았어요. 집주인들 쪽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인지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았지만 못 본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국토부도 설명회를 하려면 건물주랑 우리랑 만나면 불상사 나니까 건물주들 따로 만나고 우리 주민들도 국토부가 따로 만나서 발언권을 줘야 해요.

문> 딴 소린데 요즘 주민들 사는 건 어떻습니까?
답> 집 좀 수리 해달라고 하면 말끝마다 나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올 사람 많다고. 집 주인들은 다 이 집에 안 살잖아요. 강남 사는지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돈 만 벌고 이익만 생각하지, 주거급여 오르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갖고 자기네들 배만 불려요. 작년 초에 박희영 구청장이 시무식 한다고 초대해서 동사무소 5층에 갔어요. 갔더니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하라대요. 다들 약물을 먹었나 어쩠나 길 넓혀줘서 고맙다, 열선 깔아줘서 고맙다, 전기등 갈아줘서 고맙다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공주택사업 한다더니 한 해 30명, 40명씩 죽는데 나중에 사람 다 죽으면 공공임대주택 해 줄거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안 불러요. 내가 멍청하게 그런 소리 한 건가 몰라도, 아부 떨라고 했으면 아부 떨었죠. 그런데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문> 정치인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동자동에 시장이니 정치인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은 와서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고. 한동훈은 뺀질이처럼 밥만 먹고 가고, 7시에 온다고 해서 내가 6시 반부터 가서 피켓 들고 있었거든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약자와의 동행이면 약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뭘 한다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세훈하고 밥 만 먹고 도망가는 게 동행인가?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은 주민하고 말 한 마디도 안 해보고 가는 게 무슨. 뉴스도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좋게 보도해요. '동자동 쪽방 와서 밥만 먹고 그냥 갔음' 그렇게 보도해야 해요.

문> 끝으로 못 한 말이나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번 해 봐요.

답> 공공임대주택 지어져서 집 문 앞에 내 이름 문패 걸고 살면 사람답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꿈이라고 꾸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데모도 하고 어디도 가보고 혹시나 우리한테 호응해주는 데가 있을까하고 더 움직이는 거죠. 저절로 되면 뭐하러 이런 데모를 해요. 솔직히 저도 마이크 잡아봤지만 사회보는데 손이 얼마나 시린 줄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는 사람만 하고 “야, 갑일아 어떻게 됐냐?” 물어보기만 하는데 내가 움직여서 성과가 나와야지 만족이죠. 단합이 좋은 거예요.